

노인주간보호서비스 이용 부양자의 삶의 질과 영향요인

노현정¹ · 최연희²

¹경북대학병원 간호사 · ²경북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Factors Influencing the Quality of Life of Caregiver using Day Care Service

No, Hyun Jeong¹ · Choi, Yeon Hee²

¹Nurse, Kyungpook Hospital; ²Professor, College of Nursing,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Korea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factors influencing quality of life of caregivers using day care services. **Methods:** Data were collected from 14 different day care services in D city, with a total of 146 female caregivers as participants. All participants were at home caregivers whose patients were senior citizens older than 65. Data were collected from September 1 to 30 of 2008 and analyzed by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Results:** Quality of life among caregivers of day care services differed significantly according to state of health, other caregivers, job, and family income. Quality of life among caregivers showed correlation with caregiving burden. The significant predictors affecting quality of life were state of health, other caregivers, job, and family income and caregiving burden. A combination of these predictors accounted for 43.5% of the variance in quality of life. **Conclusion:** These findings show that quality of life of family caregivers using day care services is influenced by caregiving burden. Development of day care service programs is necessary in order to reduce caregiving burden of family caregivers for the elderly.

Key Words: Day care, Burden, Quality of life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현대사회는 산업화와 의학의 발달과 함께 공중보건의 향상을 가져와서 평균수명의 연장은 물론, 노인인구의 현저한 증가를 가져왔다. 그 결과 노인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져 2000년에 우리나라의 노인인구가 7.2%로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에 진입한 이후, 2018년에 14.3%로 고령사회(aged society)에 들어서게 되고, 2026년에는 20.8%로 초고령화사회(super-aged society)되어 2050년에는 이 숫자가 37.3%로 세계의 최고령국가가 될 전망이다(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05).

노인인구의 급증은 높은 발병률과 치명적인 합병증 그리고, 장기간의 많은 경제적 소모를 초래하게 하는 치매, 뇌졸중과 같은 장기

요양보호 노인의 증가를 가져오게 되어, 노인은 물론 가족 전체의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또한 노인부양으로 인해 부양자의 신체적 문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활동이나 취업, 관계, 여가생활 등의 정서적, 경제적, 사회적 활동 등이 제한됨으로써 삶의 질에 더욱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Ferrell, Grant, Funk, Otis-Green, & Garcia, 1998). 이렇듯 장기요양을 요하는 보호노인의 부양문제는 부양자에게 끊임없는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긴장을 주는 것은 물론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욕구까지 희생을 강요하여, 부양자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게 되고, 다시 노인에게까지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Yuon, 2007). 이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주간보호서비스의 요양급여의 혜택을 들 수 있다. 주간보호서비스는 기능손상노인의 장기요양을 위한 재가서비스들 가운데 그 수와 중요성이 크게

주요어: 노인, 주간보호서비스, 부양자의 삶의 질

Address reprint requests to: Choi, Yeon Hee

College of Nursing,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130 Dongdeok-ro, Jung-gu, Daegu 700-721, Korea

Tel: +82-53-420-4926 Fax: +82-53-420-4926 E-mail: yeonhee@knu.ac.kr

투고일: 2012년 11월 20일 심사완료일: 2013년 1월 16일 게재확정일: 2013년 1월 17일

증가하는 지역사회 노인보호 서비스 중 하나이다. 실제 시설보호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 시설보호보다는 재가노인을 위한 가정보호서비스와 지역사회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가능한 한 노인들이 가족, 친지, 이웃들과 함께 친숙한 주거환경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사회·심리적인 안정을 유지하고 만족스러운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는 주장(Park, 2003)이 높아지고 있다.

주간보호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을 부양하는 부양자는 사회적, 정신적 지지를 제공받으므로 부양자의 부양부담감을 경감시켜 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Esther, 2003; Lotus, Chen, & Lee, 2004). 따라서 부양자의 부양부담감의 감소로 인하여 부양자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의 실제적인 크기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노인 부양자를 대상으로 한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부양자의 부양부담감만을 다루었거나(Kim, 2002; Kim, 2004; Lee, 2006), 삶의 질만을 다루어(Kim, 2001; Kim, 2003; Shin & Yang, 2003)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을 돌보는 부양자의 삶의 질의 영향요인에 대한 보고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급격히 늘어나는 주간보호서비스 이용에 발맞춰 노인주간보호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을 돌보는 부양자의 삶의 질의 정도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주간보호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노인을 돌보는 부양자의 삶의 질과 부양부담감을 파악하고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함이다.

- 1) 주간보호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을 돌보는 부양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삶의 질 정도를 파악한다.
- 2) 주간보호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을 돌보는 부양자의 삶의 질과 부양부담감을 파악한다.
- 3) 주간보호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을 돌보는 부양자의 삶의 질과 부양부담감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4) 주간보호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을 돌보는 부양자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한다.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노인주간보호서비스 이용하고 있는 노인을 돌보는 부양자의 삶의 질과 부양부담감의 정도와 부양자의 삶의 질의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방법

연구대상은 D시 소재의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는 65세 이상 노인인과 함께 동거하면서 매일의 부양을 1차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여성 부양자이다.

본 연구의 표적 모집단은 D시에 소재하고 있는 전체 주간보호시설 38개소로 하였다. 이를 행정구역별로 나누어 정렬한 후 크기비례 확률표집을 실시하여 14개 주간보호시설을 선정하였다. 표집된 14개 주간보호시설에 K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에서 발송한 연구협조공문에 동의를 받은 후, 본 연구자가 선정된 주간보호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시설 관리자와 함께 자료수집에 관한 실무회의를 거쳤다. 본 연구자는 K대학교 간호 대학생 3명의 연구보조원에게 설문내용 설명과 응답요령 등 자료수집과정동안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 사전 교육을 실시하여 자료수집의 타당성을 유지하였다.

조사기간은 2008년 8월 1일에서 30일까지 1명의 연구보조원당 4개씩 주간보호시설을 방문하여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취지, 목적, 설문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고 설문응답자의 서면동의를 받은 후 설문지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전체기관에 151부가 회수되었으나 대답이 불충분한 설문지 5부를 제외하여 총 146부가 분석대상에 활용되었다. G*Power 3.1 프로그램을 이용한 대상자수는 회귀분석을 위해 유의수준 .05, 검정력 80%, 효과크기는 중간수준인 .25로 하였을 때 145명이므로 본 연구의 표본의 크기는 적절하였다.

3. 연구 도구

1) 삶의 질

삶의 질 측정은 Noh (1998)가 개발한 삶의 질 척도를 사용하였다. 도구의 하위영역은 정서적 영역 13문항, 사회적 영역 6문항, 신체적 영역 7문항, 경제적 영역 6문항으로 총 3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삶의 질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개발당시 신뢰도는 Chronbach' α = .94였고, 본 연구에서는 Chronbach' α = .90였다.

2) 부양부담감

부양부담감 측정은 Kwon (1996)이 개발한 부양부담척도를 사용하였다. 도구의 하위영역은 경제적 부양부담에 관한 3문항, 신체적 부양부담에 관한 4문항, 심리적 부양부담에 관한 10문항, 사회적 활동상에 부양부담 6문항으로 총 2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부양부담감 점수가 높을수록 부양부담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개발당시 신뢰도는 Chronbach' α = .90였고,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hronbach' α = .92였다.

4.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dow 16.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 통계 처리하였으며, 사용된 자료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주간보호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을 돌보는 부양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삶의 질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t-test 및 ANOVA로 분석하였고, 부양자의 삶의 질과 부양부담감 정도는 평균비교로 분석하였다.

2) 노인주간보호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을 돌보는 부양자의 삶의 질과 부양부담감과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고, 부양자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설명력을 구하기 위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독립변수에 대한 회귀분석 가정의 충족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공선성 진단, 잔차, 특이값을 진단하였다. 공차한계(tolerance)는 .65-.91로 0.1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는 1.19-1.62로 기준치인 10을 초과하지 않아서 다중 공선성의 문제가 없었다. 또한 Durbin-Watson을 이용하여 오차의 자기상관을 검증한 결과 2.012로 2에 가까웠으므로 자기상관의 문제도 없었다. 잔차 가정의 충족하기 위한 검증결과 잔차 평균이 0, 표준편차 1 이하 범위에 있었으며, 정규분포표에서도 이상적인 분포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Cook's distance값을 살펴본 결과 1.0을 초과한 값이 없어 회귀식의 가정을 모두 충족하였다.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삶의 질

대상자의 연령은 40세 이하 27.9%, 41-50세 27.3%, 51-60세 28.5%, 61세 이상 16.4%순이었다. 대상자와 노인과의 관계는 딸며느리가 53.2%로 가장 높았으며, 대상자의 건강상태는 '그저 그렇다'가 42.4%로 가장 많았다. 대상자를 교대로 도와줄 수 있는 2차 부양자의 수를 보면, 있다 63.6%, 없다 36.4%이었고, 부양기간은 1-3년 미만이 37.6%로 가장 많았다. 직업이 있는 경우가 63.0%로 없다 37.0%에 비해 많았고, 가구원의 월평균수입은 100-200만원 미만이 34.5%로 가장 높았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건강상태($F=13.59, p<.01$), 2차 부양자 유무($t=-3.42, p<.001$), 직장상태($t=-3.85, p<.001$), 월 가구수입($F=4.24, p=.001$)에서 삶의 질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대상자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다'거나 2차 부양자가 있으며, 직장이 있고, 월 가구수입이 높을 경우 대상자의 삶의 질이 더 높았다(Tables 1, 2).

2. 대상자의 삶의 질과 부양부담감

대상자의 삶의 질의 정도는 3.0점으로 나타났다. 삶의 질의 하부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 = 146)

Variables	Categories	n (%)
Age	≤ 40	41 (27.9)
	41-50	40 (27.3)
	51-60	43 (28.5)
	> 60	22 (16.4)
Relation of the elderly	Spouse	12 (7.0)
	The eldest daughter in-law	80 (53.2)
	A daughter in-law	22 (15.7)
	A daughter	30 (22.2)
State of health	Worst	4 (4.2)
	Bad	30 (20.6)
	So-so	66 (42.4)
	Fine	42 (27.9)
	Better	4 (4.8)
Other caregivers	Yes	95 (63.6)
	No	51 (36.4)
Duration of caregiving	Under 6 month	15 (11.5)
	6 month-under 1 yr	18 (13.3)
	1 yr-under 3 yr	59 (37.6)
	3 yr-under 5 yr	30 (20.6)
	More than 5 yr	24 (17.0)
Job	Yes	94 (63.0)
	No	52 (37.0)
Family income (won)	> 100 million	34 (23.0)
	> 100-200 million	53 (34.5)
	> 200-300 million	39 (25.5)
	> 300-400 million	8 (7.3)
	> 400 million	12 (9.7)

요인들 중 정서적 영역이 3.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사회적 영역 3.4점, 신체적 영역 3.1점, 그리고 경제적 영역 2.2점 순이었다.

대상자의 부양부담감 정도는 2.5점으로 나타났다. 부양부담감의 하부요인들 중 경제적 부양부담이 2.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심리적 부양부담 2.5점, 신체적 부양부담 2.4점, 그리고 사회적 부양부담 2.2점 순이었다(Table 3).

3. 대상자의 삶의 질과 부양부담감의 관계

주간보호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을 돌보는 대상자의 부양부담감과 삶의 질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산출한 결과, 대상자의 삶의 질과 부양부담감은 부적 상관관계에 있었다($r=-.374, p<.01$) (Table 4).

4. 대상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델 1에서는 일반적 특성에서 삶에 질에 유의한 차이가 난 특성을 투입하였다. 대상자의 건강상태가 좋은 경우($\beta=4.873, p<.01$), 2차 부양자가 있는 경우($\beta=3.392, p<.01$), 직업이 있는 경우($\beta=3.171, p<.01$), 월 가구 수입이 높은 경우($\beta=2.038, p<.05$)가 삶의 질이 높

Table 2. The Difference of Quality of Life by General Characteristics

(N = 146)

Variables	Categories	n (%)	M	SD	t/F	p
Age	≤ 40	41 (27.9)	108.1	15.29	1.54	.204
	41-50	40 (27.3)	101.9	15.55		
	51-60	43 (28.5)	105.1	14.80		
	> 60	22 (16.4)	107.8	13.67		
Relation of the elderly	Spouse	12 (7.0)	100.7	11.32	2.39	.071
	The eldest daughter in-law	80 (53.2)	104.9	16.31		
	A daughter in-law	22 (15.7)	111.5	12.73		
	A daughter	30 (22.2)	102.2	13.46		
State of health*	Worst ^a	4 (4.2)	98.0	7.07	13.5	< .001
	Bad ^b	30 (20.6)	103.2	18.03		
	So-so ^c	66 (42.4)	100.2	12.49		
	Fine ^d	42 (27.9)	112.0	11.13		
	Better ^e	4 (4.8)	130.5	7.05		
Other caregivers	Yes	95 (63.6)	108.4	15.17	-3.4	< .001
	No	51 (36.4)	100.3	13.48		
Duration of caregiving	Under 6 month	15 (11.5)	112.4	19.63	1.64	.165
	6 month-under 1 yr	18 (13.3)	105.8	15.80		
	1 yr-under 3 yr	59 (37.6)	105.6	15.44		
	3 yr-under 5 yr	30 (20.6)	101.4	14.43		
	More than 5 yr	24 (17.0)	105.2	8.77		
Job	Yes	94 (63.0)	108.8	15.06	-3.8	< .001
	No	52 (37.0)	99.8	13.33		
Family income* (won)	> 100 million ^a	34 (23.0)	97.1	13.86	4.2	.001
	> 100-200 million ^b	53 (34.5)	105.8	14.29		
	> 200-300 million ^c	39 (25.5)	110.2	13.78		
	> 300-400 million ^d	8 (7.3)	106.5	16.63		
	> 400 million ^e	12 (9.7)	110.5	15.82		

* Scheffe test.

Table 3. Quality of Life and Caregiving Burden (N = 146)

	M	SD
Quality of life	3.0	4.37
Emotional	3.5	7.78
Social	3.4	3.18
Physical	3.1	3.48
Economic	2.2	3.04
Caregiving burden	2.5	3.39
Economic	2.9	1.97
Physical	2.4	2.11
Psychological	2.5	5.66
Social	2.2	3.83

Table 4. Correlation between Quality of Life and Caregiving Burden (N = 146)

	Quality of life
Caregiving burden	-.374*

*p < .01.

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델의 설명력은 38.1%이었다.

모델 2에서는 모델 1에서 총 부양부담감 점수를 추가 투입했을 때, 대상자의 건강상태가 좋은 경우($\beta=3.878, p<.01$), 부 부양자가 있는 경우($\beta=3.027, p<.01$), 직업이 있는 경우($\beta=2.175, p<.01$), 월 가

Table 5. Factors Affecting Quality of Life (N = 146)

	Model 1			Model 2		
	β	t	p	β	t	p
State of health	4.873	4.58	.004	3.878	4.87	.006
Other caregivers	3.392	5.33	.002	3.027	5.94	.005
Job	3.171	4.14	.004	2.175	4.69	.003
Family income	2.038	2.89	.043	1.875	2.31	.032
Caregiving burden				-6.747	-6.22	.001
	$R^2 = .381, F = 31.33, p = .004$			$R^2 = .435, F = 40.80, p = .003$		

Dummy variable : other caregivers(0=No, 1=Yes), job(0=No, 1=Yes).

구 수입이 높은 경우($\beta=1.875, p<.01$), 부양부담감이 낮을 수록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델의 설명력은 43.5%로 모델 1에 비해 5.4% 증가하였다(Table 5).

논 의

주간보호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을 돌보는 대상자의 삶의 질 정도는 3.0점으로, 본 연구와 동일한 도구로 재가 중증 노인을 돌보는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측정된 Lee와 Song (2000)의 연구에서 2.7

점 보다는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는 재가에서 만성질환노인을 돌보는 대상자보다 주간보호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을 돌보는 대상자들의 삶의 질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주간보호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낮 동안 노인을 보살피는데 따르는 부양부담을 줄이게 되고, 직업이 있는 부양자는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가족의 긴장을 줄이고, 가족이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심리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삶의 질의 하부영역별 평균평점은 정서적 영역이 3.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Kim (1998)의 연구에서도 노인부양으로 인한 생활의 변화와 노인부양으로 인한 속박감, 그리고 개인적 시간과 사회생활 참여의 많은 제약은 정서적으로 매우 큰 스트레스를 가져온다고 하였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가족제도에서 돌봄의 책임을 일차적으로 여성의 역할로 생각되어 부양으로 인한 책임을 남성보다 여성이 훨씬 더 많이 지게 되는데, 본 연구는 대상자를 여성으로 제한하여 그로 인한 정서적 영역의 삶의 질의 점수가 더욱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삶의 질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하위 영역은 건강 상태, 2차 부양자 유무, 직장상태, 월 가구수입이었다. 매우 좋은 건강상태를 가진 대상자는 나쁜 건강상태를 가진 대상자보다 삶의 질의 모든 영역에서 더 높았다. 이는 가족원의 부양부담감과 가정간호 요구도(Lee, Park, & Kim, 2004; Mignor, 2000)의 연구에서도 나타났듯이, 대상자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면 노인의 지속적인 일상생활을 원조해야 하는 입장에서 신체적인 영역의 삶의 질은 더욱 떨어질 수 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정서적, 사회적, 경제적 삶의 질 또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2차 부양자 유무에서는 2차 부양자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보다 삶의 질이 더 높았으며, 이는 치매노인 부양가족원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Kim & Lee, 1999)에서 치매노인에게 교대 수발자가 있을 때 삶의 만족도는 양호하다고 나타난 결과와 같다. 직장상태에 따른 삶의 질에서는 직장이 있는 부양자가 없는 부양자에 비해 삶의 질이 더 높았는데, 이는 Choi (2007)의 연구에서 직업을 가지고 있는 노인 부양자가 직업이 없이 노인을 돌보는 대상자보다 생활만족도가 더 높았다는 결과와 일치하였다. 또한 대상자의 경제상태가 좋을 경우 낮은 경제상태에 비해 삶의 질이 더 높았는데, 이는 Min (2003)과 Kim (2009)의 연구 결과와도 유사한 결과로 부양가족의 소득수준이 삶의 질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주간보호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을 돌보는 부양자의 부양부담감은 2.5점으로 Jeon (2007)의 재가 치매노인 주부양자의 3.0점에 비해 다소 낮은 점수였고, Lee (2001)의 재가 뇌졸중 노인 환자 가족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의 3.3점에 비해서도 낮은 점수이었다. 이는 노인성 만성질환의 경우, 노화과정과 맞물려 손상된 기능의 회

복정도가 약한 반면 회복에 걸리는 시간이 길고 유병률이 높아 부양자의 부담이 높아질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Cho & Ko, 2007). 이때, 주간보호서비스와 같은 사회복지 서비스와 서비스 실천 방법에 의해 부양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을 받거나, 정서적으로 위로를 받는 것은 부양부담감을 감소시켜주는 효과가 있음(Im, Ko, Kim, & Park, 2008)을 알 수 있다.

부양부담감의 하부영역별 부양부담감 중에 경제적 부양부담이 2.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Kim (2002)과 Kim (2004)의 연구에서 노인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는 가족의 부양부담 감소효과에서 경제적 부양부담은 감소하지 않고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결과와 본 연구가 일치하였다. 이는 이용가족 대부분이 주간보호서비스를 이용지불금을 매달 지출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갖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노인주간보호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을 돌보는 노인부양자의 부양부담감이 높을수록 삶의 질의 점수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혈액투석 환자 가족원을 대상으로 한 Min (2003)의 연구와 뇌손상 환자 가족원을 대상으로 한 Lee (1999)의 연구와 뇌졸중 환자 가족원을 대상으로 한 Kim (2001)과 Park (2003)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그러므로 노인을 돌보는 가족구성원의 사회적 지지 정도에 따라 그들의 삶의 질과 부담감 정도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간호의 궁극적인 목적인 대상자의 최적의 안녕상태를 유지하지 위해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적 지지중재와 부담감을 보다 적게 지각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대상자의 부양부담감이 삶의 질에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치매환자 가족(Oh, 2008)과 뇌졸중 환자 부양자(Lee, 2001)에 관한 연구에서도 부양부담감이 삶의 질에 영향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렇듯 재가 부양하는 자들보다 주간보호서비스의 이용하는 노인을 돌보는 대상자의 부양부담감이 낮고, 삶의 질 점수가 높아진 것으로 비추어 보면, 대상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주간보호서비스 이용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주간보호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노인을 돌보는 대상자가 지각하는 삶의 질과 부양부담감의 정도를 알아보고 부양부담감을 포함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들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조사하였다.

주간보호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을 돌보는 대상자가 지각한 삶의 질과 부양부담감의 정도는 재가에서 만성질환노인을 돌보는 대

상자에 비해 부양부담감은 다소 낮은 편이었고, 삶의 질은 다소 높았다. 또한 경제상태가 양호하고 부양자가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2차 부양자가 있는 경우 부양부담감이 적었다. 부양자의 부양부담감은 커질수록 삶의 질이 저하되었다.

그러므로 노인을 돌보는 대상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간보호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도록 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주간보호서비스의 인프라 확충을 통해 주간보호서비스 이용의 접근성을 높이고, 이용료에 대한 본인 부담감을 낮추는 방안을 통해 주간보호서비스를 좀 더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1) 재가 복지 서비스 중에서 주간보호서비스뿐만 아니라 전체 재가 복지 서비스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 비교 연구할 것을 제언한다.

2) 본 연구는 일부지역에 국한하여 조사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기에는 대표성의 제약이 따른다고 할 수 있다. 대상자의 범위를 넓혀 더 많은 반복연구를 제언한다.

참고문헌

- Cho, Y. H., & Ko, G. S. (2007). Family characteristics and self-care ability in visiting nursing service based on urban public health center. *Journal of Korea Academy of Public Health Nursing*, 21(1), 15-25.
- Choi, E. J. (2007). *A study on nursing needs and satisfaction of elderly inpati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 Esther, S. (2003). Family burden and quality of life. *Quality of Life Research*, 12(1), 33-41.
- Ferrell, B. R., Grant, M. M., Funk, B. M., Otis-Green, S. A., & Garcia, N. J. (1998). Quality of life in breast cancer services. *Oncology Nursing Forum*, 25(5), 887-895.
- Im, Y. M., Ko, G. S., Kim, B. R., & Park, S. Y. (2008). Elder image, self-efficacy and burden among family caregivers. *Journal of Korea Academy of Public Health Nursing*, 22(2), 153-164.
- Jeon, S. H. (2007). *A study on the satisfaction in day care services for the demented elderly's primary caregiver*. Unpublished master's thesis, Wonkwang University, Iksan.
- Kim, H. Y. (2009). *A study on nursing needs of the elderly in longterm care institution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ngju National University, Gongju.
- Kim, K. B. (2001). The correlation among health status, burden and quality of life of the adult stroke patients family and the elderly stroke patients family.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dult Nursing*, 13(2), 262-276.
- Kim, M. J. (2004). *A study on influence of day care service to long-term care for the elderly reduce family care burd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University, Seoul.
- Kim, S. O. (2002). *A study on families' supporting obligation toward senile-dementia patients, who use the day-time-care-center for old people*.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shin University, Gyeonggi-do.
- Kim, T. H. (1998). A study on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life for the aged. *Journal of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18(1), 150-169.
- Kim, Y. J., & Lee, P. S. (1999). A study on the burdens and depressive reactions on families who cared for patients suffering from senile dementia.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9(4), 776-779.
- Kim, Y. S. (2003). *Study on the self-esteem and the quality of life of the old*. Unpublished master's thesis, Donggeui University, Pusan.
- Kwon, J. D. (1996). Measuring the caregiver burden of caring for the demented elderly. *Yonsei Social Welfare Review*, 3(1), 140-168.
- Lee, H. J. (2006). *The change of caregiver's burden for the dementia elderly by the use of daycare center*.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Seoul.
- Lee, H. J., & Song, R. Y. (2000). Coping strategies utilized in the caregiving situation and predictors of health responses among informal caregivers of older adul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0(4), 893-904.
- Lee, K. H. (2001). Correlation among the stroke patient family's health status, burden and of life. *Journal of Korean Academy*, 31(4), 669-680.
- Lee, S. J., Park, H. R., & Kim, N. C. (2004). Life satisfaction and burden for primary caregivers of patients with dementia in day care centers and in their homes. *Journal of Korean Gerontological Nursing*, 7(1), 37-46.
- Lee, Y. M. (1999). Effect of social support group on quality of life and burden of primary family caregivers of patients with brain injury.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Adult Nursing*, 11(3), 413-424.
- Lotus, S. Y. I., Chen, M. C., & Lee, H. C. (2004). Caregiver's needs as predictors of hospital readmission for the elderly in Taiwan. *Social Science & Medicine*, 58, 1395-1403.
- Mignor, D. (2000). Effectiveness of use of home health nurse to decrease burden and depression of elderly caregivers. *Journal of Psychosocial Nursing and Mental Health Services*, 38(7), 34-40.
- Min, Y. S. (2003). Relationship among burden, social support and quality of life for the family caregiver of hemodialysis pati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Nursing*, 12(3), 358-366.
-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05). *Statistics for estimated future population*. Retrieved December 20, 2005, from <http://kosis.kr/wmsearch/totalSearch.jsp>
- Noh, Y. J. (1998). *Analytical study on the quality of life of the middle-aged in Seoul*.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 Oh, H. (2008). *The study in the pattern of health condition, sustenance allowance, quality of life of the patient family with the senile dementia*.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he University, Seoul.
- Park, Y. H. (2003). The effects of the day care service program for the elderly and family with the stroke-compared with the elderly and family in hom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3(7), 990-998.
- Shin, K. R., & Yang, J. H. (2003). Influencing factors on quality of life of middle-aged women living in rural area.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3(7), 999-1007.
- Yoon, J. Y. (2007).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caregiving burden in the families of long-term care elders-focused on families using day care centers for the aged*.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llym University, Chunchun.